

[로스쿨 소식]

## 대형로펌, 경희대학교 · 한국외대 · 서울시립대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1법학관 대강의실에서 경희대 · 한국외대 · 서울시립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로펌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주요 대형로펌들이 대거 참여했다. 4월 27일에는 법무법인 총정, 4월 28일에는 법무법인 세종, 4월 29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5월 1일에는 법무법인 율촌, 5월 4일에는 법무법인 화우, 5월 7일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대형로펌이 SKY로스쿨 출신만을 채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2015. 3. 19. 법률신문 '대형로펌 신입, SKY 쏠림' 격화 기사 참조) 실제로 대형로펌들은 학생수가 100명 이상이 되는 대형 로스쿨에만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반면, 규모가 작은 소형 로스쿨에는 좀처럼 대형로펌의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형 로스쿨 소속 학생들은 인턴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대형로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로펌 설명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세 로스쿨 학생회의 노력 덕분이었다. 손영현 경희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황승중 한국외대 로스쿨 학생회장과 이준태 서울시립대 로스쿨 학생회장을 만나 합동설명회 개최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곧바로 10여개의 주요 로펌에 공문을 보내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고, 김앤장 등 6개 로펌이 호응한 것이다.

설명회는 성황리에 진행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희창 변호사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은 설명회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소형 로스쿨 출신이라는 점이 채용에 불리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형로펌 변호사들은 오해라고 답했다. 율촌 이강민 변호사는 "제가 오늘 바쁜 날이지만 여러분을 만나러 서둘러 도착했다"며 "만약 여러분을 뽑지 않을 것이었다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정 최우영 대표변호사도 "오히려 비SKY 출신의 학생을 선발해 보면 일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 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태평양은 그동안 획일적이었던 법조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법조문화를

만들어보고자 노력하는 로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대 로스쿨 특별전형 제도까지 두고 있다"며 "우리는 학부 전공, 출신 로스쿨, 심지어 성격까지 다양하게 선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희대·외대·시립대 출신의 로펌 변호사들도 참석하여 자신의 입사비결을 들려줬다. 화우 설명회에는 경희대 로스쿨 3기 출신의 최광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자소서를 쓸 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임팩트 있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앤장 설명회에는 서울시립대 출신의 김미아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며, "비SKY출신이어서 채용이 안 되리라 미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대형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모든 설명회 일정에 참여한 경희대 로스쿨 심창현 씨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질문도 많았다"며 "그만큼 세 학교 학생들이 정보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손영현 경희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로펌 변호사분들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은 준비를 해주 감사했다"며 "주요로펌이 SKY로스쿨만 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학우들이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황승중 외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비록 처음이라 아쉬운 점도 있었다"면서 "오히려 잘못된 소문을 일소하는 유익한 자리였고, 앞으로도 세 학교와 로펌들이 발전적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태 시립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로펌들이 참여하여, 이번 설명회가 더욱 유익한 기회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울동부로스쿨 재학생들의 활발한 사회진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이 특정 출신 로스쿨만 우대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인식 때문에 소형 로스쿨 학생들은 대형로펌 지원을 꺼린다. '지원서를 써봐야 안 될 것'이라 미리 단념한다. 소형 로스쿨 출신자들의 지원이 적으니, 당연히 대형로펌에는 대형로스쿨 출신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형로펌들은 세 로스쿨의 방문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철저히 준비된 설명회로 대형로펌들이 소형 로스쿨 출신자들도 채용할 의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능력만 있다면 학교를 불문하고 채용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한 대형로펌 채용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법률신문 인용)